

“ 거룩한 전쟁은 거룩한 평화를 향해 가는 출발점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역사적 심판과 구원의 주로서의 야훼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전쟁용사(divine warrior)로서 계시된다. 이러한 야훼 이미지는 드보라의 노래(삿5), 미리암의 노래(출15)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와 “전쟁의 용사” 로서의 칭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신학자 중에 ‘뽀뽀스러운 민족주의적 자기 이익 추구’ 라는 망령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 해도 그러나 전쟁용사로서 하나님 이미지는 죄가 있는 세계에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여기서 논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즉 전쟁은 궁극적으로 악이지만 그러나 악한 세계에서 해방자 하나님이 억압자들과 피억압자들의 혼합체인 인간 사회와 불가피하게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용사로서의 야훼 이미지는 이슬람의 지하드나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 등을 정당화해 주는 오류로 떨어지거나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야훼 전쟁 이념은 왕조의 지배 이념과 침략 논리에 이용당하거나 지하드 이념과 십자군 전쟁 논리를 유발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모세와 레위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한 자들을 숙청할 때 무차별 살육을 야훼의 명령으로 이해한 것은 그 실례가 된다.

사실 거룩한 전쟁(milhamah gedosah)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출애굽 해방, 가나안 정복, 가나안 방어를 위한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는(패하는) 전쟁까지 포함하여 “야훼 하나님이 싸우시는 야훼의 전쟁” 을 통칭하여 부른 용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도시국가 군주들을 정복한 전쟁, 아비멜렉의 전쟁, 입다의 전쟁 등은 거룩한 전쟁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4-5세기 때 그리스의 역사가와 아테네의 시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종교 숙정을 전쟁에 적용한데서부터 비롯된 용어다. 거룩한 전쟁은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음으로 시작하고 전쟁이 끝난 후 제대 명령이 내려짐으로 끝이 난다. 전쟁의 축진을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전쟁이 촉발되고, 전쟁 시작 전에는 참회와 탄식의 의식 즉 신에게 묻는 절차 그리고 군대를 야훼의 백성이라 칭한 후 금욕과 맹세를 요구함으로써 야훼의 군대를 성별한다. 전쟁이 시작될 때 완료시제로 전쟁 승리의 확신하는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을 받은 지도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적 신뢰와 믿음만을 요구한 다음 야훼께서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친히 그 군대 대열의 맨 앞에 서신다. 이처럼 야훼 전쟁은 신이 인간을 도운다거나 때로는 인간이 신을 도운다는 신. 인협력사상(synergismus)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군대의 수가 적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무기와 전력, 전략에 의존하는 것을 부정하고, 반전사상 등으로 인간의 전쟁 참여를 거절하고 인간의 전쟁 참여는 기도원의 군대처럼 햇불을 든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과 비슷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리품은 야훼에게 돌리고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거룩한 전쟁은 신앙과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왕조시대와 그 이후 성경 역사에서 평화 추구의 사상으로 바뀌어 갔다.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야훼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야훼의 일임을 회중이 알게 하겠다(삼상17) 하였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싸우시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지배 이념과 배교와 싸우시고, 고난 받는 자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시므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룩하시려고 싸우신다 하겠다. 거룩한 전쟁 이념은 거룩한 평화를 얻으려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전쟁은 복음화된 통일 조국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18호] 2018년 11월 10일 발행-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6:1-8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y Said Nothing to Anyone”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우리의 비전 (vi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 style="font-size: small;">서울교회 QR코드</p>
---	---	--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p> <p>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민(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를,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택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p>	<p style="text-align: center;">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p> <h1 style="font-size: 2em;">서울교회</h1>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순례자의 삶 ”

■ 창 12:4-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행 7:2-3).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서 지체하자 하나님은 아브람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본문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역사는 인주의 역사가 아니라 유랑의 역사입니다.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향한 아브람의 여정은 편안한 인주나 현대가 아니라 차가운 냉대와 계속되는 유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아브람의 가나안 여정은 소망에 찬 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강박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것은, 물론 불안정하고 고단한 삶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16:9의 히브리 지혜자의 고백은 순례자의 삶을 아는 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1. 순례자의 삶은 장막 생활이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가 죽은 것은 175세였습니다. 100년 동안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가족으로 만든 가버온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장막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무엇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었단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들어가서 그곳에 인주하고 있는 친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유혹이 아브라함에게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돌아갈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을 것입니다.(히 11:15) 그러나 그는 하란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순례자의 삶을 오히려 택하고 죽는 날까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2. 순례자의 삶은 제단을 쌓는 생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예배생활입니다. 아브람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타향에서 겪는 온갖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브람의 신앙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평도 하는 우리들에게 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생활은 예배이며, 회개와 순종과 헌신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 한 곳에 반드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란 온전한 번제와, 자기부정, 자기헌신의 회생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진정 장막생활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고백한다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룩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3. 순례자의 삶은 약속을 믿는 생활이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의 믿음이 시험에 봉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고 내 생애 중에 그 땅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에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히 11:16)

맺는 말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 끝에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순례자의 삶은 장막생활과 예배생활과 약속을 따라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지키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명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성탄축하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35:3-4...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7(구주강림3)...	다 합 께
송 영 Doxology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5:31-4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인자가 오실 때에”...	서명철 목사
* 찬 송 Hymn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인 도 자
찬 송	다 합 께
기 도	임상헌 장로
성 경	인 도 자
세례식	이종윤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설 교 자
특별찬양	가브리엘찬양대
* 찬 송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송민정 권사
성 경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안식일의 주인 예수(2)"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안박수강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오치열 장로, 지휘: 백경화 권사)가 준비 한 성탄축하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실시 / 금년도 마지막 세례식인 12월 세례식이 금일 16일(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임승한집사(010-7743-32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노선균(흉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이영현 군(이후근, 김미경 씨의 차남)과 김성은 양(2교구 김원중 집사, 이갑연 집사의 장녀) / 12월22일(토) 오후 12시30분 더리버사이드호텔 1층 노벨리홀(671-1100) / 3호선 신사역 하차 5번 출구</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19명	212명	180명	1,211명	12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9일	헌 금	28,496,800	
	찬양운영비		3,500,000
	교회학교운영비		918,000
	선 교 비		1,000,000
	출 판 비		390,000
	복리후생비		198,000
	통 신 비		553,450
	수도광열비		165,000
	소모품비		738,000
	차량유지비		366,700
	도시인쇄비		336,000
	환경유지비		50,00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971,200
	합 계	28,496,800	9,483,350